냄새추적개 따돌리기

(요1:19-28)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냄새추적 개 따돌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냄새추적 개 따돌리기'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충청북도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교동창생 세 명이 전날 밤 술을 많이 마시고 전부 술에 젖어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깨어

났습니다.
속도 쓰리고 배도 고픈데, 다들 치킨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주머니사정을 확인해보니 아무도 치킨을 살만 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셋이서 동시에 치킨집에 한 마리씩 주문을 해서, 각기 지금 모두 있는 원룸촌의 다른 호수로 배달을 시키면, 동시에 세 마리를 갖고 올 것이고, 한 마리를 먼저 배달하기 위해 갈 때, 나머지 두 마리가 배달 오토바이에 남아있을 테니 그걸 훔쳐서 먹기로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계획이 적중했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어떻게 걸렸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 치킨집 사장이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곳으로 뛰어온 겁니다.
첫 번째 치킨을 배달한 곳도 허탕이었고 오토바이에 남아있던 두 마리 치킨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그 원룸촌으로 와가지고 잡아냈는데,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치킨 냄새를 맡아가지고 잡아냈습니다.
아, 재미있지 않아요?

시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낸 책 중에 <어미여우는 어떻게 새끼를 돌볼까요?>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What?>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물로 나오는 동화책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미여우 빅스가 남편을 잃고 세 마리의 새끼여우를 데리고 생활을 해나가면서 새끼여우들에게 어떻게 이 험난한 삶을 헤쳐 나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좀 슬프게 끝이 납니다마는…
이때 빅스가, 레인저라고 하는 사냥개가 자기를 쫓아올 때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사냥개를 따돌리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로 강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강물에 뛰어 듦으로써 자기의 냄새가 싹 사라져버리면 사냥개 레인저가 어미여우인 빅스의 뒤를 쫓다가 사냥개로서는 더 이상 쫓을 길이 없어집니다.
어미여우 빅스의 행방이 거기서 끊어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냄새를 갖고 추적해나갈 때.
바로 이것이 세례요한이 베푼 물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어미여우가 물속에 뛰어 듦으로써 냄새를 통해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길에 흔적을 남겼는데, 물에 뛰어들면서 뛰어든 그 장소로부터 어미여우 빅스의 인생의 길이 사냥개 레인저에게는 끊

어져버리고 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물세례를 받게 되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 물세례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세례를 받건 안 받건, 내 마음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얘깁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왜 세례를 베푸느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유대사회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이방사회에서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거나, 또 세례라는 것이 죄 사함의 의미와 연결이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 사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은 하나님이 직접 보낸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세례요한이 뿌리를 알 수 없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문제와 연관되어서는 자기들이 주관해야 할 일인 것을, 근원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런 의문을 와서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세례를 베풀고 있는 나의 사역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즉, 주의 길을 곧게 해야 될 사람은 우리에요, 우리.
세례요한은 그렇게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고, 우리가 바로 곧게 해야 되는 당사자인 것이죠.

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요한이 언급될 때마다 반복해서 들려지는 얘기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선 맨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주님께서 가셔야 될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를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분이 나와 만난 뒤에 당신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참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분께서 나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당신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길을 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길까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만나기 전까지 다 우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은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목표나 희망이나 하는 것들을 향해서 가지 않더라도, routine 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routine하다는 것은 매일 정해진 틀대로 일상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학교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친구 만나고…, 이러한 routine한 삶이 반복되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 진척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에 나만의 냄새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던

내 스타일의 길, 내 스타일의 목표, 내 스타일의 희망, 소원, 성취, 이런 것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곧게 하시느라, 내가 골짜기에 빠지면 건져주시고, 내가 높은 산 위의 목표점을 갈 때 그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저런 험난한 길을 갈 때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소원하는 바를 향해 가는 나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서 내 길에 편승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과 만난 뒤에 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돕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가시게 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면서 베푼 물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라!'
어미여우 빅스가 사냥개 레인저가 자기의 냄새를 맡으며 추적해오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물속에 뛰어들어서 내 스타일의 인생을 추구해가던 모든 소원과 목표와 계획과 내 스타일의 냄새가 나는 인생길 자체를 거기서 끝내라는 얘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냥개 레인저가 쫓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빅스가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갑니다, 희망을 갖고 갑니다, 소원을 갖고 갑니다, 욕구와 성취감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희망과 비전과 목표가 말이 좋아 목표이고 희망과 비전이지, 사실은 사냥개에게 쫓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사냥개에게 쫓긴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낙후될까봐, 이러면 쳐질까봐, 경쟁에서 뒤처지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loser가 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희망으로 둔갑을 하고, 목표와 비전으로 둔갑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잖아요?
사냥개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이대로 망할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사냥개에게 쫓기면서 하는 일이, 목표에서 비전에서 계획에서 판단에서도 내 스타일의 나만의 냄새를 풍기면서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loser가 될까봐, 낙후될까봐, 망할까봐 쫓겨 가면서, 허울 좋은 목표와 희망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길이 물세례를 통해 완전히 끝나서 내가 살고 있는데도 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판단에서, 계획에서, 소원에서 나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나와 주님이 만난 뒤부터는 이제, 주님의 길을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사냥개가 쫓아올 수 있을 내 냄새를 풍기는 내 스타일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스타일은 끝나야 되고, 내 냄새는 끝나야 됩니다.
내 냄새가 남아있는 내 인생길은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자,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냥개였어요.
골짜기는 깊이 파인 곳입니다,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울한 것이고, 불안이고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직도 내 스타일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고, 나 나름의 냄새를 풍기면서 내 인생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스타일로 끌고 가고 싶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은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 목표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에 쫓기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희망과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그쪽으로 내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목표가 없어져야 돼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내 마음이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겠다고 하는 목표와 희망이 있어서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내 인생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스타일의 냄새를 풍기는 인생길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주님이 나와 만난 뒤에는 주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세례요한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뭐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이제 그분이 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길을 끝내야 됩니다.
내 길을 계속 가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뒤에는 주의 길을 가시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내 스타일의 냄새를 풍기면서 걸어왔던 이 인생길이 물에 빠짐을 통하여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냄새가 더 이상 인생에서 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왜? 이제는 주의 길을 가야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의 냄새가 나야 되는 주의 행적이 내 인생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는 내 인생의 길은 전부 내 냄새가 없고 주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세례요한이 준 물세례의 의미에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준 물세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의 인생에 냄새를 풍기고 있던 나의 냄새가 완전히 끊어져버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주의 길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물세례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싱강이 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주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때로는 높은 산을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높다고 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요.
또 주님은 때로는 골짜기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낮다고 하는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요.
주님은 때로는 바다를 건너는 항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당신의 길을 가실 때에 어떤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산 위로 올라가신다고 해도 나는 등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골짜기로 내려간다고 해도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항해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질 다양한 국면들은 주님의 냄새가 나는 주님의 길인 것이지, 내 냄새가 나는 내 인생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요한이 세례요한의 사역의 의미를,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과 인간의 만남을 위하여 삽입시키는 중차대한 의미라는 얘깁니다.

우리의 냄새가 물세례를 통해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냄새가 나는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이 곧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각 속에서도 계획 속에서도 그리고 목표와 소원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냄새만이 나는 인생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